

단판승부냐... 쪼개기냐... 북·미 정상 '종전 합의' 촉각

'세기의 빅딜' 오늘 북미정상회담

완결된 합의보다 종전 문구 합의문 포함 후 남북미 논의할 듯
완전합의 땀 종전 선언·평화협정 급물살
정부, 비핵화 협의 등 상황 보며 평화체제 구축 준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국 정상 '종전 합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미가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종전 관련 합의를 이룬다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미 양측이 문재인 대통령을 싱가포르로 초청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이어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 선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에서 먼저 일정 수준의 '종전 합의'가 나오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남북미 간의 논의를 거쳐 3국 정상 간의 종전선언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종전 선언 자체가 정치적 행위인 만큼 먼저 북미가 그와 관련한 합의를 하고 남북미 3자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의 절차로 가도 어려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단계를 더 잘게 나눠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완결된 형태의 '종전합

의'를 내놓기보다는 관련 종전 관련 문구를 합의문에 포함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지난 4월27일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의 종전선언 관련 내용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넣거나, 앞으로 북미 양자가 종전 선언을 추진한다는 수준의 내용을 합의서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명문화된다면 최소한 종전선언과 불가침 관련 내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고 공식 선언은 남북미 정상 이 함께하는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전제로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향후 회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종전선언이 후속 북미정상회담 이후 시점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우리 정부로서는 더 시간을 갖고 비핵화 협의의 진척 상황을 보아가면서 종전선언을 넘어 남북 경협 등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양자 종전선언 여부를 떠나 만약 남북미 종전선언이 성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싱가포르 이스타나 대통령궁 앞에서 시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행렬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포르 회담 이후로 추진된다면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할 때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 또는 9월 중순을 열리는 제73차 유엔총회에서의 선언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미국이 11월 중간선거인 만큼 9월이나 10월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개최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 종전선언 절차가 앞당겨지거나 싱가포르 회담 마지막 순간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 남북미 정상 간의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북미 3국 외무장관 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이 추진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북 매체 대대적 보도
북미 정상회담에 관해 보도를 자제하던 북한이 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대대적인 보도를 하며 뉴스 보파리를 풀어놓았다고 AP통신이 11일 평양발로 보도했다. 북한은 이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비롯해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위해 전날 싱가포르에 도착한 사실을 크게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1·2면에 걸쳐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출발, 싱가포르 도착, 싱가포르 총리와의 회담 등을 보도했으며 6면에는 개인명명의 정세 논설을 실었다. /연합뉴스

민간공원 2단계, 건설사·공기업 대거 참여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의 향서 접수 마감일인 11일 지역 건설업체, 공기업 등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발 규모, 면적 등을 대폭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숲세권'이라는 점, 도심 내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이 가능한 유일한 부지라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11일 "창초 오후 5시까지 의향서를 접수할 예정이었으나 신청서류가 쇄도해 5시 이후까지 접수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 공원은 중앙·일곡·중외·송정·운암산·신용(운암) 등 모두 6개이며, 이 가운데 중앙공원은 2개 지구로 분리해 시행한다.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1개 공원당 최소 20개 이상의 의향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건설업체는 6개 공원에 모두 의향서를 내는 등 과열 양상도 보였다. 다만 의향서는 모든 공원에 낼 수 있지만, 제안서는 단 1곳에만 제출할 수 있어 건설업체들의 신경전도 치열할 전망이다. 제안서는 오는 9월 14일이 접수시한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의 경우 개발 면적을 기존 30%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대폭 축소하고, 지역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북미 '비핵화 담판' 주요 쟁점별 입장

북 비핵화	
미국의 'CVID' 용어 사용 반대, 패전국에 적용하는 방식이라며 강한 거부감	북미정상회담 합의에 반드시 'CVID 원칙' 명기
북 체제 보장	
비핵화 이전에 제재 완화와 체제 안전보장 조치 등 구체적 청사진 제시 요구 (종전선언, 경제제재 해제와 북미 관계 정상화 등)	핵무기·핵물질·ICBM 등 보유핵의 해외 반출 대가로 대북 제재 완화
비핵화 대상	
완전한 비핵화 의지 표명 (항후 로드맵은 미국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유핵: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량살상무기(WMD) 등 반출·폐기 ·미래핵: 우라늄·플루토늄 등 핵 원료, 영변핵시설, 핵실험장 등 핵시설 폐기
비핵화 기한	
미국의 '단계적·동시적' 해법 강조	2020년까지 북한 비핵화 완성 제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안전보장'(CVIG)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미회담 후 14일 남북 장성급회담 개최
'세기의 담판'으로 불리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는 회담 직후인 14일 개최되는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장성급회담의 핵심의제인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1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직후 열리는 남북장성급회담은 북미회담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장성급회담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논의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날 국방부 대북정책관인 김도균 육군 소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장성급

1단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보완했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중복 참여를 인정해 공공개발 대상을 늘리고, 각 공원별로 개발 면적에 융통성을 주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2단계 대상 공원의 전체 면적은 711만 8839㎡, 비공원시설 즉 개발 면적은 65만 9901㎡, 공원 대상지 면적은 39만 8412㎡다. 나머지 606만 526㎡는 원형지로 보존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개발 면적 비율은 국토교통부 지침(30%)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9.27%다. 시는 지나친 고층화를 억제하기 위해 공원의 용도지역 변경을 중고층 아파트 개발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했다. 또 참가자격 역시 1단계에서 드러난 민간기업의 중복 참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업체별(계열사 포함) 1개 공원만 참여하도록 하고 공공기관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일각에서는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한해 중복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공고에 포함된 심사기준표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단독 참여할 경우 재무구조·경영상태(15점)에서 만점을 받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임야·삽니다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게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개월씩...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심의회번호 : 2179239

NAVER 유한바이오 백세생활건강 · 검색
010-3598-7080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 대지 14,916.9㎡, 건물 998㎡(H비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건물일부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임대중

◆ 매매가 28억 ◆ (조정가)
인원산업(주)
010-3605-0214
062) 655-4840

급 식당 임대

- 서구 쌍촌동 965-12번지 1층
- 약20평 보증금 1천만 월 90만
- 시설 : 에어컨, TV, 주방시설 완비 냉장고 기타비품 풀 완비 (약 4천만원 상당)
- 급 : 1천2백만에 양도
- 부동산 환영

감정가 40%이하 급 모델

- 전남지방 방 15개
- 감정 5억6천 급 매매가
- 3억5천 담보제공가능

감정가 30%이하 급 모델

- 광주 북구 방 30개
- 감정 11억 급 매매가 7억8천
- 현 법인소유 이전비 없음

문의 010-7527-7400